

다시 읽는 십계명

대부분의 성경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십계명이 쓰여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십계명을 잘 알고 있겠지만, 동시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쉽사리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십계명이 교인들의 삶에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학교에서는 십계명을 외우도록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십계명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교인들도 있을 지 모릅니다.

"~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는 (10개의 계명 중에서 8개) 십계명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계명의 하나 하나를 곱씹다보면, 현대 사회와는 좀 거리가 멀어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명령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옛 계명들로 치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아세렛 하드바림" 또는 "아세렛 하디브룻"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직역하자면 "열 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타이르는 인생의 교훈이자, 사랑 넘치는 "말씀"이었고, 파라오를 왕으로 섬기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유 헌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10주간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두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번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 *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Ur)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달의 신 '난나' (Nanna)가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었고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던 곳이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때 살았던 하란 역시,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 이름만 달리 불렸을 뿐, 우르처럼 달의 신인 '신' (Sin)이 보호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태양의 신 '라' (Ra)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그리기도 힘든 셀 수 없는 신들이 넘쳐나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도 모두가 우상과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곳은 고기 가마에 늘 고기 삶기가 그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번영의 도시이던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된 아브라함과 모세의 눈에는 버려야할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가지의 계명 중에서 특별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으뜸가는 계명으로 삼은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과거를 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네가 신들로 섬기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농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섬기던 신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섬기던 신들의 왕이라 말하던 신들, 그리고 그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벌이던 가증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너희들의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들에 한 눈을 팔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것 가운데 으뜸으로 네가 지켜야할 계명이며, 나와야 약속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맺는 관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 첫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토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토대 위에 집을 세워야 그 집이 안전하듯,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두번째 계명, 세번째 계명,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 *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일까요? 십계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첫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 문화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해, 달, 별, 물, 흙, 땅의 동물들, 새들과 물고기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형상에 그 이미지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자연스럽게 지중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유적을 발굴하다보면, 곳곳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우상의 형상들이 출토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과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첫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셨는데, 두번째 계명에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두번째 계명에서 만들지 말라는 형상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주변의 고대 서아시아 지방에서는 무언가의 형상은 그 영혼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의 모양이든, 달의 모양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하고, 돌로 깎아 만들든, 또는 진흙으로 빚어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고대 서아시아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고 소유하려고 했을까요? 단지 나만 그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서는 아닐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욕심이 그러하듯, 신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려는 욕구는 내가 그 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의 욕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 * *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의 표현 방법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참 뜻을 유추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맹세는 성전처럼 제사장, 재판관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재판하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그리고 약속하거나, 기도할 때 자기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지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렸다는 것을 문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그 말로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금하셨다는 것이 참 놀랄 일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 분을 만들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은 바로 그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록 더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신들 중의 하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알라딘이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신들을 불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자꾸 자기의 이름을 불러대니, 신들이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지요? 구약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대 사회의 영향이 살짝 엿보입니다.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한 야곱이 그 이름을 물어보았고 (창32),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이름을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삿 13장).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천사)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떨기 나무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 않은 것도, 고대 사회 문화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앎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두개의 의미 중의 하나, 또는 이 둘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세번째의 명령을 읽으며, 삶과 신앙이 유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내 의지를 주님께 내려 놓는 신앙생활을 해야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 * *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이고 (창9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할례입니다 (창17장).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의 증거는 안식일입니다 (출31장).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예는 셀 수 없으리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던 내가, 하루를 온전히 나를 있게 하신 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하나님께 보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일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칠일에 한번씩 생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삶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박애주의적인 '쉽'이라는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이 왜 묵직할까요? 아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쉽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쉽은 우리가 생각하는 쉽 이상의 쉽을 이야기합니다. 나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밭에서 일하는 소와 가축들까지도 온전히 누리는 쉽,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자유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종들까지 누릴 수 있는 쉽,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쉽이 아니라, 나그네 까지도 모두가 누려야 할 쉽. 그러므로 이 쉽의 명령은 절대로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를 확증하는 날이면서, 사람들이 만든 사회 속에서 보장해 주어야 마땅한 쉽을 이야기하는 매우 엄중한 율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의 명령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 *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앞의 네 개의 명령과 그 길이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네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 살이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 20:12; 신 5:16). 그리고 그 길이도 매우 짧아요. 그런데 레위기에도 이 다섯 번째 계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공경하다"라는 말 대신에 "경외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 뒤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을 숨겨 놓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듯 하라"라는 의미로 이 명령을 이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다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해석들이 다섯 번째 계명을 잘 설명하였을까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외의 다른 성경 구절에서 "공경하다"라는 말인 히브리어 "키베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찾아보고 조금 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키베드"의 첫 번째 의미는 "자랑하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하는 거예요 (잠 4:8).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들추거나, 그 실수를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장점을 보고 높여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시 91:15). 조금 의미가 추상적인데요. 시편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어려움을 못 본척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헤치고 나온 부모를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부모를 돌보는 것이 공경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호랑이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큰소리치면 말할 때,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보통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매우 자주 만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서너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 공동체에서 나이 들어 힘이 없는 어른을 모시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부모는 그저 힘이 없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현재를 있게 한 살아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살아 있는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비단 이 계명은 성경의 전통일 뿐 아니라, 지켜내야 할 우리나라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 * *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피와 지방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의에서도 피와 지방은 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일 경우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이 계명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기기가 참 힘든 계명이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는 계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죽이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번역은 '죽이지 말라'라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라는 구절을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피흘리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도 십계명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여기고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의 이 계명을 근거로 군대를 가는 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잠재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해석하는 다양한 전통과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십계명에서 사용된 '죽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라짜흐'인데, 이 동사가 구약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지를 확인해보면, 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알 수가 있겠지요. '라짜흐'는 구약성경에서 47회 사용됩니다. 오경에서는 주로 도피성의 제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민 35; 신 19). 오경 밖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는 도피성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고(수 20,21), 그 외에는 열왕기나 예언서, 시편과 욥기, 잠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잠언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 구절에서 '죽이다'라는 동사의 주체는 항상 '사람'이었고, 목적어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명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행위입니다. 동물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계명을 근거로 동물을 죽여서 음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죽이는 행위마저도 '죽이지 말라'는 십계명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십계명을 위반하면서 드리는 불법적인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죽이지 말라'라는 구절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석하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근거로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라짜흐'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데, 이 동사가 사용되는 정황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의 결과라던가, 한 사람의 탐욕으로 누군가를 피흘리게 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군인이 상대방의 군인을 죽이는 행위는 '라짜흐'라는 동사가 아니라 '하라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죽이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근거로 군대에 소집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 계명의 원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구절은 한 남자(그가 결혼한 사람이던지 아니던지 간에)가 결혼한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합니다. 이 둘은 모두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레위기 20:10). 간음은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부와 한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 역시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단지 가정에만 한정되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다' 또는 '간음한 사람'이라는 말이 31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나아프), 이 용례들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서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이외에는 오로지 레위기 20:10에서만 간음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요. 이 규정들은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생기는 남녀의 문제를 다룹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가장 문자적인 적용이지요. 그런데 예언서로 가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음하다'라는 말의 용례 중에서 80%정도가 모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킬 때 사용되거든요. 어찌보면 가장 개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 하나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법률'이라는 약속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로 확장해서 이 계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매우 자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말과는 달리 모든 명사에 성(性)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여성형이고, 하나님은 남성형 이거든요. 이런 언어-문화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비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바로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요? 간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떠올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더 이상 간음을 죄로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번째 계명에서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하는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훈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벌하는 유대인 사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고소 사건에는 간음하다 잡혀 나온 여인은 있는데, 그 상대자인 남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자 뿐 아니라, 남자도 함께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남자는 쏙 빠져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남자는 왜 빠진 것일까요? 아마 그 남자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서 그 남자도 함께 재판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사회의 약자였던 여자를 모래주머니 삼아 마구 때리며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또 아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재판이 매우 이상한 재판이었다는 것과 예수님 역시 간음을 죄로 규정하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 *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함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 역시 어기가 더 힘든 계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인 하지 말라', '간음 하지 말라'와 더불어 십계명에서 가장 짧은 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역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하기 위해서는 '도둑질하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가나브'가 어떤 용도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를 알아야합니다.

첫번째로는 그야말로 금, 은과 같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허락없이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금, 은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가치로서 중요한 소, 양, 염소와 같은 동물들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할 주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도 훔치지 말아야 재산의 목록에 들어갑니다(창 31:19). 고대 다신론의 사회에서는 신들도 재산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아니지만 말이지요.

두번째로는 사람도 훔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살육의 현장에서 내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왕하 11:2; 대하 22:11),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납치', 그리고 '인신매매'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것이 로맨틱한 사랑의 표현은 아니고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입니다(창 31:20,26, 삼하 15:6).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의심이 가지 않게 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마음을 훔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고보면, 첫번째와 두번째의 예의 경우는 처음 말한 것처럼 어기기가 힘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번째로 오면 점점 실재적인 우리의 삶에서 흔히들 범하기 쉬운 일들이 됩니다.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매우

정치적인 대화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여덟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하나님의 말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렘 23:30; 참조 욥 4:12).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이익에 맞게 바꾸어 이해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양심에 찢리는 명령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편한대로, 또는 내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변호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끌어다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도둑질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서 매우 광범위 합니다. 위의 예들처럼 일상적인 물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드라빔)까지, 또 사람마저도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창 31:19). 내 소유가 아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역시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리 쉬운 계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기기 어려운 계명도 아닙니다. 늘 우리의 일상에서 범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할 계명입니다.

* * *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굳이 히브리어 본문을 거칠게 직역하자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을 해 놓았지만,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위의 번역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십계명의 아홉번째 계명이고, 신명기에서는 "네 이웃에 대하여 공허한(헛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 그야말로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랬노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증인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헛된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뱉는 과장된 말이나 필요없는 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종종 진실과 과장의 경계선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반복해서 말하던 과장마저도 사실인양 착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조금더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신명기는 조금더 넓은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문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나쳐 버리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첫번째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재판정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릇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부부 사이에 침대에 누워 직장이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허풍을 떨거나 때로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절반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동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리고 침대에서 하는 둘 만의 대화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의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서는 이 명령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종류의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두번째로, 이 계명은 "거짓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인가?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보호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악의없이, 도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내 안에 양심이 나를 찌를 때마다, 이것에 대의(大義)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킬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말은 '거짓' 증언이며, '헛된' 증언이 됩니다.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네 이웃'을 유대인 공동체에만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 아홉번째 계명이 규정하는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십계명에 대한 옳은 이해일까요? 그 거짓 증언으로 고통을 받아야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를 죄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정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두고, 내 입으로 어떤 말을 내 뱃을 때마다 먼저 곱씹어야 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프로이드는 인간을 정의하면서, homo desiderium(욕망의 존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소유한다는 것은 심리학이라는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에 의하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27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꾸로 거스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욕망은 다스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욕망까지도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저 하늘의 규칙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십계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계명,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그 계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탐내지 말아야 할 객체들의 순서만 조금 다를 뿐 출애굽기의 열번째 계명과 신명기의 열번째 계명이 그리 다르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책이 사용한 동사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는 '탐내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의 열번째 계명에서는 '~에 마음을 두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계명부터 아홉번째 계명까지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닫는 마지막은 이전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앞서 말한 모든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듯, 행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그 행위를 있게하는 마음과 생각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내는 것을 경계합니다.

열번째 계명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들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단지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

자체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교묘한 방법, 심지어는 그것이 적법한 방법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탐심을 경계합니다.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노력해서 얻고 싶다"는 것을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이웃의 희생'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나의 욕구가 이웃의 희생 위에서 채워진다면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누군가의 피흘림으로 완성된다면, 그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 땅의 목표들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매맺게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 분의 뜻에 합당한 것들 만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이루는 나의 동기와 그 과정에 오로지 '나'만 있고, '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잠시 세우실 것입니다. '나' 뿐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돌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